

哲學教育의 現況과 課題

嚴 廷 植
(西江大 哲學科 助教授)

I

大學은 원래 넓은 의미로 哲學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대학의 原型이라고 볼 수 있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의 문전에는 “기하학을 아는 자만이 드나들 수 있다”고 하여 철학교육인 변증법 습득의 준비를 미리 갖추도록 요구하였고, 「大學」에도 明德과 至善을 터득하여 治人과 治國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요컨대 대학이라는 진리의 전당은 높고 깊고 넓은 學問을 다루는 곳이고, 이러한 학문이란 곧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의 理念과 本質이 많이 달라졌고 철학이라는 학문의 정체도 상당히 변질된 것이 사실이다. 대학은 이미 철학과 같이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학문에 집착하지 않고 있으며, 철학 또한 원래의 모습처럼 그렇게 높거나 깊지 않게 되었고 그 영역이 또한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哲學教育이라는 과제는 대학과 철학의 괴리현상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게 되는 셈이다.

특히 현대와 같은 과학기술문명의 시대에 있어서는, 대학의 機能이 주로 첨단적 과학기술의 연구와 터득에 급급해 있고 실용적 학문의 진수에만 몰두해 있는 형편이어서 철학교육의 重要

성은 많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의 선진화가 매우 시급한 나라에서는 선진국의 과학기술이나 산업체제 같은 것을 모방하기에 여념이 없어서, 철학을 비롯한 인문과학의 진수에 몰두하는 것을 차라리 시간의 낭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風潮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새삼스럽게 이 점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러한 현상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철학은 철학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微分化作業을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무엇이 과연 철학의 고유한 영역인지조차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철학은 갈릴레오와 뉴턴의 등장으로 과거에 자연철학이라고 불리우던 자연에 관한 이론적 탐구를 자연과학에 넘겨 주었고, “인간학에서의 뉴턴”으로 자처하던 후음이 나타나 聯想心理學의 기초를 마련한 것을 기점으로 하여 인간과 사회에 관한 연구도 대부분 심리학이나 사회과학으로 이전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학문 세계의 分家現象은 추상적인 철학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어 지금은 존재 자체의 본질과 언어의 논리적 분석 등에 몰두할 수 밖에 없는 명분만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마치 지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가문만을 명맥으로 유지하는 老父母의 허탈과 비견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실

용적 가치의 탐구에 전념하고 있는 현대의 대학이 철학을 白眼視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인가?

II

대학에서 철학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철학과 대학이 오늘날 많이 변질되어 있음을 수증하면서, 이 양자가 갖는 원래의 理念과 使命이 무엇이었는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철학교육이 절대로 경시될 수 없는 당위를 우선 역설한다. 무엇보다도 대학은 단순히 職業教育에만 전념하는 고급인력의 산실이 아니라 진리탐구의 전당인 동시에 지도자적 인격의 道場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지적 성고가 사회봉사에 효율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대학과 학문의 명분, 즉 철학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철학교육의 名分과 所任은 무엇인가.

먼저 철학교육의 명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철학이 다른 分科科學과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곧 “철학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으로서, 분가현상이 야기시킨 이유 외에도 철학의 분파와 조류에 따라 해석이 각양각색이므로 대답하기가 극히 어려운 문제이다.

마르크스를 위시한 사회철학자들은 철학의 명분을 세계와 자아 및 사회에 대한 궁극적인 理解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바람직한 형태로 변혁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哲學觀을 가지고 있는 부류의 철학자들에게는 철학과 사회과학 사이의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言語分析哲學者들은 철학이 경험과학의 하나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혹은 인문과학에서 쓰이는 언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존재세계의 구조와 본질에 대한 이해에 몰두한다. 實存現象學도 철학이 경험과학일 수 없음을 강조하나, 특히 현상 뒤에 펼쳐진 존재의 실상을 파헤치고 인간의 實存的 狀況을 규명하는 데서 철학의 명분을 제시한다.

이 밖에도 현대철학에는 여러 조류가 있으나 그 조류가 강조하는 점에 따라 철학 자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르고, 그 차이의 정도에 따라 철학교육의 명분과 소임 또한 상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철학이 경험과학 중의 하나로 간주될 수는 없으며, 世界와 人間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시도하고 그 의미를 밝혀내는 데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 철학교육의 特有性과 獨自性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철학교육은 치밀한 논리적 사고의 훈련을 통해 독창적인 批判의 能力을 길러 준다. 원래 논리적 사고는 인간의 思惟에 근간을 이루고 모든 학문의 방법에 기초가 된다. 철학교육은 논리학의 습득을 통하여 갖가지 논변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게 하고, 그 타당성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특히 英美의 분석철학은 러셀(B. Russell)이 창안한 「命題의 論理學」에 힘 입어 아리스토텔레스적 논리를 포괄하고 뛰어넘는 세련된 언어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기능이야말로 학문의 분화를 겪고 대부분의 철학적 과제를 경험과학에 물려준 현대철학이 갖는 철학교육의 특권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치밀한 분석의 기능은 경험과학들이 무엇을 전제로 하며 상식적으로 당연한 듯한 판단들이 어떤 종류의 先入見 위에서 있는지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예를 들어 경험과학들은 현상에 因果의 法則이 적용되고 있다는 전제를 일단 받아들이는 것으로 출발하나, 철학교육은 그러한 법칙 자체의 妥當性 여부를 타진하도록 훈련함으로써 과학의 정체를 재인식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사고의 훈련은 철학교육의 둘째 기능, 즉 가치에 대한 독창적 판단력을 함양하고 사물에 대한 포괄적 견해를 지니도록 해 준다. 哲學的 分析은 원래 언어의 분석이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세계와 인간과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터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의미를 묻는 것은 결국 自我認識의 문제이다. 경험과학은 현상의 구조와 정체를 밝혀내지만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묻지 않는다. 그러나 철학교육은 이러한 의문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유도함으로써 합리적 價値判斷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물론 철학교육은 이러한 종류의 질문에 정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왜 어떤 종류의 질문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는지의 이유를 스스로 찾도록 돕는다. 철학교육의 이러한 기능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치에 대한 懷疑論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유발하는 것이 사실이나, 대학교육이 敎義의 인 독단만을 주입시키는 작업이 아닌 이상 문화의 전수와 재창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준다는 점에서 절미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사실 철저히하고도 집요한 懷疑가 없는 사물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이것은 철학사나 사상사가 회의론의 극복이라는 과제로 집결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철학교육의 명분과 소임을 논리적 사고의 훈련과 독창적 판단력의 함양이라는 두 가지 기능의 측면에서 살펴보았거니와, 이러한 기능은 기계기술이 만능을 자랑하고 인간의 自己 疎外現象이 두드러진 현대에 와서 특히 절박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교육은 철학이 단순히 시대를 외면하는 空理 空談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사회의 가치와 의미를 밝히는 데 필요 불가결한 학문임을 인식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제 오늘날 철학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추세로 변모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Ⅲ

철학교육의 내용은 대체로 哲學史와 철학의 方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철학사에서는 동서양의 문화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그러한 사상이 배태될 수 밖에 없는 필연성 같은 것을 제시하며, 다시 이것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다. 철학적 작업은 물론 獨創의 思惟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철학사를 통하여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저명한 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흔히 무의미한 공상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철학하는 방법'에서는 사물을 선입관 없이 바라보고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이러한 능력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것이 곧 批判的 판단력이다. 철학사 교육에서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차적인 것이고 학생 스스로가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 철학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칸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무도 '철학'을 가르칠 수는 없다. 다만 "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philosophieren)"를 가르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철학교육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철학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많이 의식되고 또 강조되어, 과거에는 철학사를 중심으로 하던 철학교육이 요즘에는 철학의 方法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이나 칸트, 헤겔 등 특정한 철학자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경향이 줄고 問題 中心으로, 즉 실체나 자유의지의 문제 혹은 인식의 본질에 관한 문제 등을 주로 다루는 추세인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 日本에서도 요즘 급속히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는 현상이다. 이것은 주로 '철학개론'의 內容을 근거로 한 고찰인데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철학교육을 문제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독창적 問題意識을 심어 준다는 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비전공 학생들에게 철학적 關心을 불러일으켜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哲學科目을 택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철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이다. 이들에게 특정한 철학자를 골라 집중적으로 다루게 하면 철학적 관심마저 잃게 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적관적 선택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선택의 代案을 마련하여 여러 철학사

과목을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철학교육을 문제 중심으로 함으로써, 철학과 경험과학의 接木을 시도하는 것이 최근에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형이상학적 과제 중의 하나인 인과론의 중요한 분석은 과학철학을 낳게 하여 하이젠베르크의 不確定性 原理 같은 것의 철학적 의미를 규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의료과학의 급속한 발전이 야기시킨 안락사나 낙태의 문제 등은 倫理學者들의 판단을 요구하여 의료윤리학이라는 과목을 등장시킨다. 이 밖에도 법철학, 예술철학, 혹은 사회철학, 수리철학 등은 문제 중심적 철학교육이 낳은 필연적 소산이다. 이러한 과목들의 開設은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인접과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비전공학생들에게도 철학적 사유의 욕구를 유발하여 철학의 實用的 價値를 만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목들에 접함으로써 진자에게는 철학의 실천적 의미와 보람을 체험하게 할 것이고, 후자에게는 자기 학문의 철학적 심오성과 궁극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활발하게 운영해 나감으로써만, 대학과 철학의 원초적 개념이 많이 변질된 오늘날 대학에서의 철학교육이 갖는 명분과 소임을 재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아직 움트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IV

철학교육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는 東洋哲學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이다.

철학교육의 명분과 소임을 논리적 사고의 훈련과 독창적 판단력의 함양으로 보고 교육의 내용을 철학사와 철학의 방법으로 볼 때, 동양철학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철학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先哲들의 해안을 접하는 데 국한된다. 오히려 그것은 논리적 사고의 한계를 애써 강조하며 西洋學에서 중시하는 방법론의 문제를 도의시하는 경향이 있다.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만남이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런 데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異質的인 두

개의 철학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동양의 지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서양의 哲學界에서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이들에게 동양철학은 철학이라기엔 너무나 종교적인 태가 있고 종교라기엔 너무나 철학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에 부딪쳐 구체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동서양의 철학을 고르게 터득한 哲學敎育者가 별로 없다는 사실에 있다. 더구나 서양 철학자들과 동양철학자들이 서로를 백안시하는 현상은 좀처럼 극복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므로 문제의 해결은 더욱 요원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철학교육의 명분과 소임이 퇴색될 수 있는 불씨를 본질적으로 안고 있기 마련이다. 분명히 이것은 동서양의 문화적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오늘날 철학교육이 당면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아마 철학자들은 우선 상대를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서양철학 쪽에서 다소 적극성을 띠고 있는 셈인데, 예를 들어 데카르트의 인식론을 다루면서 莊子의 꿈을 언급한다든가, 아리스토텔레스의 Mesotes와 孔孟의 中庸을 비교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등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적인 추세는 애들러(M.J. Adl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동양의 지혜를 가르칠 만한 위대한 교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거피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은 동양철학자들의 아량과 분발이 더욱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서구적 사고방식의 限界와 서구문명의 病弊를 통탄해 마지 않는다면 이것을 극복할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진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피해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선 과감히 다가가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날의 대학이 國子監이나 成均館이 아니고 그 지향하는 목표가 太學의 이념과는 거리가 먼 이상, 현실적이고 능률적인 철학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모종의 종합과 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오늘날 대학에서의 철학교육이 당면한 課題와 現況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대학의 이념이 많이 변질되었고 철학의 연구과제와 의미가 현저하게 달라진 오늘날 아직도 철학교육의 고유한 명분과 소임이 있다면 그것은 치밀한 논리적 사고의 능력을 터득케 하는 것이고,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독창적 판단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력과 판단력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지도적 인격의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이고 자기의 분야가 무엇이든 간에 탐구의 보람과 의미를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다면 학문이 극도로 분화되고 인간의 기계화 현상이 두드러져 한결같이 불안과 소외의 열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에게, 특히 대학인에게 철학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왜 “반성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며, 이러한 反省을 통해서만 인간의 존엄성이 확인되고 문명의 위기도 또한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아직도 대학이 진리탐구의 전당이며 인격수양의 도장임을 자처한다면 철학교육이야말로 대학교육의 중핵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철학교육의 문제는 곧 대학교육 자체의 문제임은 간과할 수 없다.

철학교육의 문제가 특히 우리 나라에서 더욱 절박한 과제로 대두되는 것은 우리 나라만이 아니고 있는 특수 상황 때문일 것이다. 동서양의 사상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으면서 서양의 이념에 의해 국토가 양단된 채, 후진성을 서둘러 탈피해야 하는 當爲 앞에 철학교육은 사치스런 장식으로 비추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가들, 예를 들어 미국은 이미 “어린이를 위한 철학”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불란서나 독일은 고등학교에서부터 철학교육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새삼스럽게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실정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당위인지를 말해 주는 것이다. 철학개론을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哲學科조차 없는 ‘대학’이 허다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곧 철학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인 셈이다.

철학은 분명히 항상 구태의연한 것을 가르친다. 그것은 한마디로 “너 자신을 알라”이다. 이 말은 얼핏 보기에 공허한 가르침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공허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을 때뿐이다.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싶지 않을 때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당위 때문에 이 가르침은 결코 공허할 수가 없다. 요컨대 이것을 터득하는 것이 대학의 存在 理由일 것이다. *